

# Django



21년 8월 21일 Django를 시작합니다.

첫 시작의 느낌은, 책 저자가 정말 독자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서문을 통해서 기쁘고 반가웠고 기대가 됐다.

저자는 어려운 이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

조금 늦어도 스스로 그 내용을 즐기며 체득해 가는 것

이라며 공부의 방향성과 함께 독려해주는 느낌이다.

1. 설명을 스스로 이해하고
2. 두세 번씩 반복해서 보고
3. 진행하려는 내용을 미리 코드로 작성해 보기  
(직접 작성하는 코드가 제일 중요)
4. [코드 - 웹 프로그래밍 - 장고 프레임워크 - 프로젝트] 순으로 진행

그리고 프로그래밍에는 환경 구성이 항상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해줬는데, 이 말이 위로가 된다. 이전 야수의 심장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가장 지치고 벽을 느끼던 부분이

라 더욱 위로 받는 기분이었다.

그만큼 더 꼼꼼히 보고 따라해야겠다고 느낀다.



Django(이하 장고)는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한 웹 프레임워크다.

즉, 파이썬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(도구)이다. 그리고 전통적인 MVC패턴을 따른다.

Life is too short, You need  
Python

인생은 너무 짧으니, 파이썬이  
필요하다.

귀도 반 로섬(Guido van Rossum)이 개발한 Python.